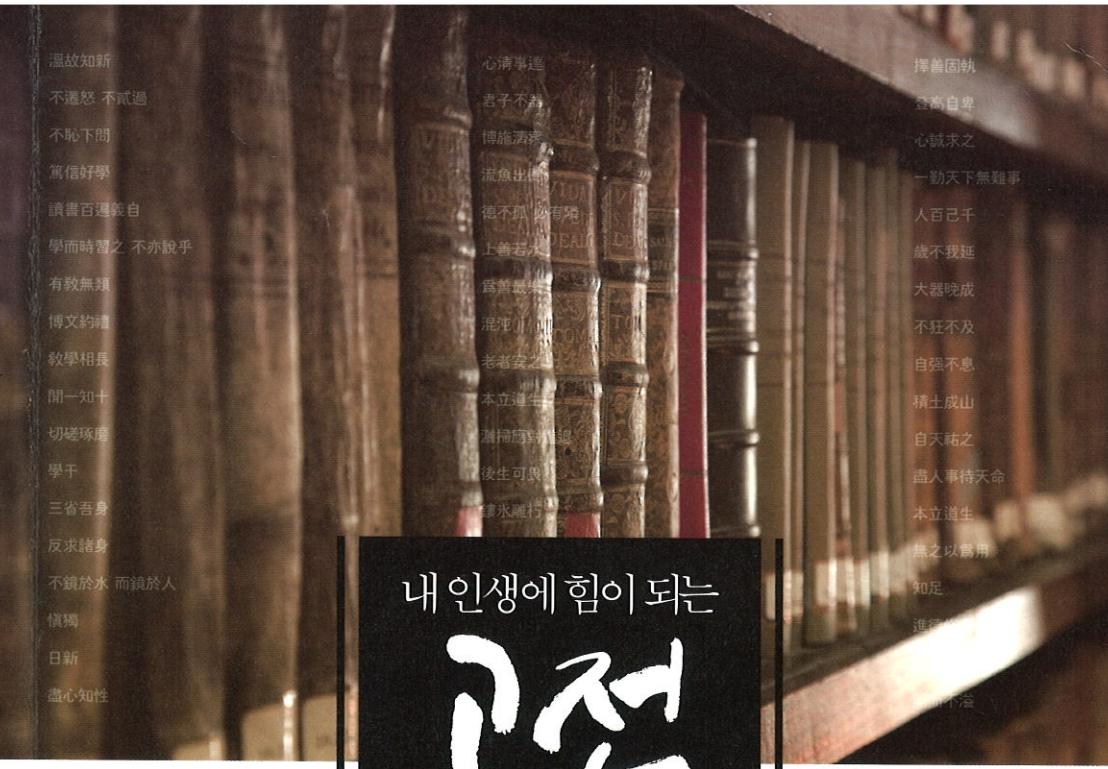


내 인생에 힘이 되는

고전 명언

그렇다면 고전이 각광받는 것은 왜일까? 좋은 말이 … 으로 내달리는 데 주력했다. 큰 보폭으로 빠르게 남 … 한 것만 콕 집어주는 족집게가 증요했지만 부작용이 … 우리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다. 좋고 나쁨의 … 께 옛사람들의 외침이, 그들의 바른 걸음이 어렵기만 …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그것이 옳은 … 게 된 것은 어째서일까? 그러 길지 않지만 우리는 앞 … 다. 이기기 위해 빠른 길을 알려주는 지침서와 필요 … 의 뒷모습이, 그들의 걸음으로 어지러워진 세상이, … 아가는 올바른 걸음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그와 함 … 는 길임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어렵다고 해서 …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길임을 알게 된 것이다.

| 하루 5분, 고전과 만나는 시간 |

● 권경자 지음 ●

윈앤윈북스

• 차례 •

지은이의 말_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과 만나는 일이다 006

• 1장 • 배움의 참뜻을 깨달아라

옛것을 익혀 현재와 미래를 바꾼다 온고지신 • 溫故知新 019
배운다는 것은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불천노 불이과 • 不遷怒 不貳過 023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꺼리지 않는다 불치하문 • 不恥下問 027
힘들여 배운 지식을 삶으로 옮겨내라 독신호학 • 篤信好學 030
책을 백 번 읽고 스스로 의미를 깨닫다 독서백편의자현 • 讀書百遍義自 034
배우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삼는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037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유교무류 • 有敎無類 041
배우고 아는 만큼 행동해야 한다 박문약례 • 博文約禮 045
가르치고 배워 서로를 성장시킨다 교학상장 • 敎學相長 049
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중요하다 문일지십 • 聞一知十 053

• 2장 •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라

매 순간 자신을 갈고닦아 인격을 키워야 한다 절차탁마 • 切磋琢磨 061
자신을 닦고 준비할 때 기회가 온다 학간록 • 學干祿 065
매일 자신을 살피고 돌이켜본다 삼성오신 • 三省吾身 069
자신과의 만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반구저신 • 反求諸身 073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 불경어수 이경어인 • 不鏡於水 而鏡於人 077
홀로 있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다 신독 • 愼獨 081
매일 자신을 닦아 새롭게 거듭나다 일신 • 日新 085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진심지성 • 盡心知性 088
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는다 심청사달 • 心淸事達 092
자신을 성찰해 남과 조화를 이루다 군자불기 • 君子不器 096

고전명언

• 3장 • 어려울수록 기본에 집중하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 모두가 잘살게 한다 박시제중 • 博施濟衆 103
선한 행동은 미물도 감동시킨다 유어출청 • 流魚出聽 107
덕은 실천으로 옮길 때 화수분이 된다 덕불고 필유린 • 德不孤 必有隣 111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어디에나 나는 있다 상선약수 • 上善若水 115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위선최락 • 爲善最樂 119
내가 우주요, 우주가 나다 혼돈 • 混沌 123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행복한 나라다 노자안지 • 老者安之 127
효도와 공경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 본립도생 • 本立道生 131
자녀의 손에 빗자루를 쥐어줘라 쇄소응대진퇴 • 灑掃應對進退 135
스승의 학문을 뛰어넘는 제자 후생가외 • 後生可畏 139

• 4장 • 꿈을 현실로 만들어라

기본이 튼튼해야 견고한 집을 짓는다 누빙조후 • 鏤氷雕朽 147
멀리까지 계획해 깊이 생각한다 원모심려 • 遠謀深慮 151
첫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다 초지일관 • 初志一貫 155
각각의 때에 맞게 시간을 아껴야 한다 촌음시경 • 寸陰是競 159
희망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다 석과불식 • 碩果不食 163
첫 마음을 떠올려 빨리 되돌아오다 불원복 • 不遠復 167
잘못된 일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불원천 불우인 • 不怨天 不尤人 170
최선을 선택해 흔들림 없이 살아라 택선고집 • 擇善固執 174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다 등고자비 • 登高自卑 178
마음을 다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심성구지 • 心誠求之 182

•5장• 노력만 한 지름길도 없다

근면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다 일근천하무난사 • 一勤天下無難事 189
경지에 이를 때까지 쉼 없이 노력하라 인백기천 • 人百己千 193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불아연 • 歲不我延 197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대기만성 • 大器晩成 201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불광불급 • 不狂不及 205
쉼 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선물이 온다 자강불식 • 自强不息 209
작은 티끌들이 모여 태산이 된다 적토성산 • 積土成山 213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천우지 • 自天祐之 217
최선을 다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진인사대천명 • 盡人事待天命 221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도를 얻는다 포정해우 • 庖丁解牛 224

•6장• 물질에 휘둘리지 마라

비워야 쓰인다 무지이위용 • 無之以爲用 231
자신의 위치를 알고 족함을 안다 지족 • 知足 235
욕심과 경쟁과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져라 진덕수업 • 進德修業 239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라 안빈낙도 • 安貧樂道 243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경계한다 만이불일 • 滿而不溢 247
우주와 하나가 되어 천지를 노닐다 소요유 • 逍遙遊 251
마음이 평안하면 초가집도 평안하다 심안모옥온 • 心安茅屋穩 255
세상의 틀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다 무용지용 • 無用之用 259

•7장• 상대의 마음을 얻어라

겸손과 낮춤, 사람을 얻는 최고의 비법이다 부이무교 • 富而無驕 267
어려운 일을 나서서 먼저 한다 선난후획 • 先難後獲 271
제각기 달라서 조화롭고 아름답다 화이부동 • 和而不同 275
덕을 베풀 때 사업이 확장된다 숭덕광업 • 崇德廣業 279
오래 사귀면서도 상대를 공경으로 대한다 구이경지 • 久而敬之 283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우며 견문이 넓은 친구가 그립다 익자삼우 • 益者三友 287
말이 아름다우면 메아리도 아름답다 언미즉향미 • 言美則響美 291
부부간의 사랑은 소유가 아닌 배려다 연리지 • 連理枝 295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삼인행 • 三人行 299
군자의 도는 은은하되 날로 드러난다 담이불염 • 淡而不厭 303

•8장• 리더의 그릇을 가져라

윗사람의 바르고 곧음이 중요하다 거직조저왕즉민복 • 擧直錯諸枉則民服 309
언제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여뢰여상 • 如雷如霜 313
이익을 보면 의로운지 생각하라 견리사의 • 見利思義 317
우직하게 바른길로 가다 행불유경 • 行不由徑 321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걸러서 말한다 언유삼법 • 言有三法 325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 여민동락 • 與民同樂 329
리더의 덕목은 복이 아닌 덕이다 종심자 필양기심 • 種德者 必養其心 333
큰 리더는 덕으로 다스린다 위정이덕 • 爲政以德 337
열린 마음, 열린 귀가 큰 리더를 만든다 함유일덕 • 咸有一德 341
청렴이 자신을 이루는 재산이다 청성사달 • 淸聲四達 345
자신을 닦는 것이 세상에 대한 실현이다 위기지학 • 爲己之學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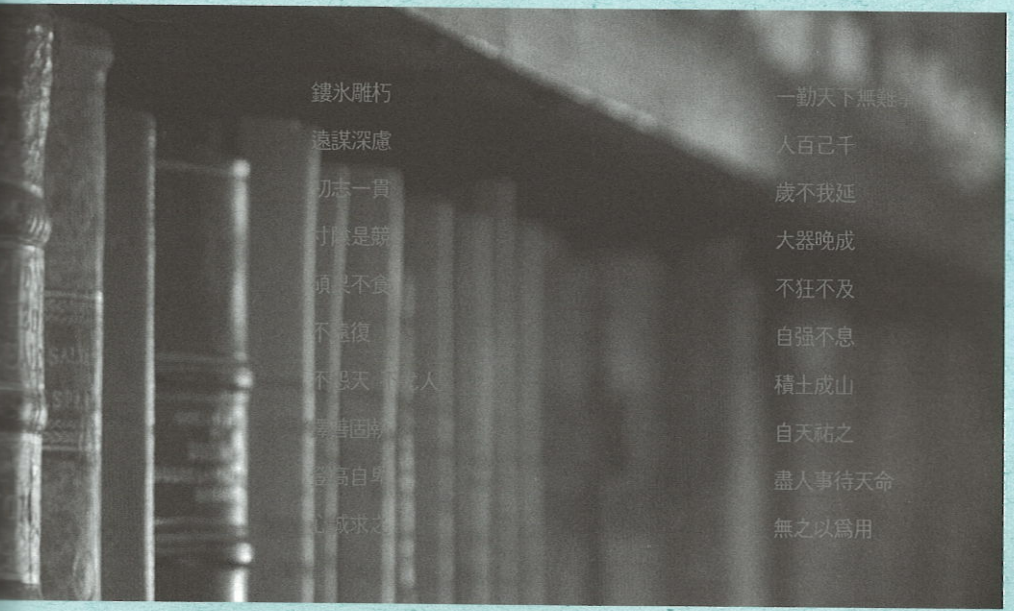
『내 인생에 힘이 되는 고전명언』 저자와의 인터뷰 354

1장

배움의 참뜻을 깨달아라

총명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 敏而好學 不恥下問 『論語』「公冶長」 –



옛것을 익혀 현재와 미래를 바꾼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 라는 뜻의 온고지신溫故知新! 가훈으로 많이 쓰는 말이라 익숙한 한자성어죠. 『논어論語』「위정爲政」편에 나오는 온고지신은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문장의 한 부분으로 따뜻할 온溫, 예 고故, 알 지知, 새 신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溫은 물 수水 변에 죄인 수囚와 그릇 명皿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죄인에게 한 그릇의 물을 주는 따뜻한 마음' 또는 '고기를 넣고 모닥불에 끓여 수프를 만든다.' 는 풀이가 있어 익히다·복습하다·원만하다·순수하다 등으로 해석합니다. 옛날 혹은 옛일을 뜻하는 고故는 '과거의 사상과 역사' 를 의미하

며, 지知는 알다·깨닫다·느끼다·분별하다란 뜻이고, 신新은 새로운 것이란 뜻입니다.

공자孔子의 자부심은 늘 배우기를 좋아하는 호학好學에 있었습니다. "열 집 정도의 조그만 읍에도 충성스럽고 신실함이 나와 같은 자가 있겠지만 내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라고 말할 만큼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그럼에도 태어날 때부터 아는 자가 아니라 옛사람이 남긴 업적을 좋아하고 사모해 끊임없이 배우고 추구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고입니다.

조선의 뛰어난 학자이자 왕이었던 정조正祖가 강조한 것이 온고溫故였습니다. 1777년 2월에 정조가 신하들에게 온고지신에 대해 질문하자 검토관 이유경이 "옛 글을 익혀 새 글을 아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조는 대답이 초학자 수준이라면서 "온고지신의 핵심은 온고에 있으며 새것을 끝없이 배워나가기보다 내게 의미 있는 것을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을 깊이 쌓아두고 성찰함으로써 앎의 정도가 더욱 깊어질 때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라 할 수 있죠.

공자는 온고를 바탕으로 문헌만 충실하다면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예禮뿐만 아니라 백 대代 이후의 일도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지신知新입니다. 즉 지신은 온고를 토대로 했을 때 가능하며, 온고는 지신으로 창조적이고 새로워져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에 대해 "박학할 뿐만 아니라 많은 능력을 지닌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의 이치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울렀기 때문입니다. 『중용中庸』에서는 이런 공자의 모습을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고 분명하게 판단해 돈독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온고지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깊이 생각하는 과정도 없고, 현재에 실천할만한 새로운 것을 도출導出하지도 않은 채 옛것만을 외우고 그것에만 몰두하면 어떨까요? 분명 답답하고 ① 고루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나간 것이나 옛것은 버려둔 채 새로운 것에만 심취하고 그것에 빠져 있다면 경박해지기 쉽지요. 즉 어느 한 가지에만 ② 천착穿鑿하거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대로 배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지식을 암기하고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와 문헌, 인물들의 삶에 담긴 지혜를 배우고 익혀 현재의 삶에 충실을 기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옛것을 배워 오늘의 삶과 미래를 향한 삶의 줄기를 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 덕분에 인류는 상상과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옛것에 대한 축적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합니다. 옛것은 오늘을 사는

내가 익혀야 할 자료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덜어내고 더하며 끊임없이 성찰해 더 나은 미래를 열 때, 지신으로 나아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온고와 지신, 이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